

# 북한개발소식

2026 MAY

05

통권 247호

## 이달의 주제

베네수엘라 · 이란 사태가  
북한에 미칠 영향과 우리의 기도

## 탈북민 수기

탈북민 수기 : 김정직 목사 (제 5화)

## 북한뉴스

김정은, '방북' 왕이 중 외교부장 접견...  
“북중친선관계 최우선 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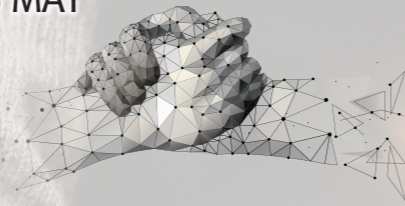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 베네수엘라 · 이란 사태가 북한에 미칠 영향과 우리의 기도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 CONTENTS 2026 MAY



이달의 주제 :

### 베네수엘라 · 이란 사태가 북한에 미칠 영향과 우리의 기도

- 권두칼럼 01** 베네수엘라 · 이란 사태가 북한에 미칠 영향과 우리의 기도
- 칼럼\_1 10** 오일환 \_ 베네수엘라·이란 사태 이후 북한 핵 문제 및 북미 대화 전망
- 칼럼\_2 18** 문성묵 \_ 이란 및 베네수엘라 사례가 북한 핵 문제에 미칠 영향 분석
- 칼럼\_3 24** 전순영 \_ 베네수엘라와 이란 사태가 북한에 미칠 함의
- 탈북민 수기 29** 탈북민 수기 : 김정직 목사 (제 5화)
- 북한뉴스 34** 北, 4월 한달 간 잇단 미사일 발사 시험 진행 외
- 서평 36** 통일은 치유다
- 북한 기도 제목 39**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외



최근 미국에 의한 지도자 생포 및 참수 작전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전례 없는 미국의 행보는 베네수엘라와 이란 뿐 아니라 세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마두로 대통령의 생포 이후 정권이 교체되는 수순을 밟고 있지만, 이란의 경우 국가적인 결사 항전에 나서면서 보복 공격을 감행하여 주변 걸프 국가까지 이란에 의해 공격을 당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급소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행보와 그 파장은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보여준 고도로 발달한 군사 기술력을 활용한 지도자를 비롯한 주요 지도부를 단시일에 제거하는 참수 작전 능력은 분명 북한에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협이 북한이 핵에 더 집착하게 만들고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과연 북한은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국내외적 움직임 또는 변화로 나타나게 될까?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북한 선교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관하여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며 정리해 보고 기도의 제목을 짚아보고자 한다.

## 미국의 잇따른 참수 작전

2026년 1월 3일 새벽 02시경,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와 베네수엘라 공군 본부가 위치한 마라카이 등에 침공을 개시했다. 그 사이 미 델타 포스는 피신 중이던 마두로 부부를 생포하는 데 성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명령을 내린 지 불과 3시간 만이었다.

이어서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군사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한 공습을 단행하였다. 이 공습으로 1989년부터 36년여 최고지도자로 이란을 이끌었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숨졌다.

두 작전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마약 테러리즘'에 대한 자위권 행사이며 국내 사법 진행 사안이라고 설명했고, 이란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에 대한 이란의 오랜 위협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꼽았다. 미국의 설명과 같이 이번에 군사 작전이 이루어진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그동안 마약과 핵 문제로 미국과 마찰을 빚어왔다. 또한 작전 당시 두 국가의 집권 세력은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야당 탄압과 선거 부정 문제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고, 이에 저항한 대표적인 야당 지도자인 마차도 여사가 2025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란 역시 장기간 온갖 제재에 시달려왔고, 2025년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sup>1)</sup>이 벌어지면서 물가 폭등과 통화가치 급락으로 경제가 휘청이기 시작했다. 오랜 기간의 독재와 경제난에 폭발한 이란의 민중들은 대규모 거리 시위에 나섰고, 이를 강압적으로 진압하면서 약 3만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사태로 발전했다.

두 작전은 군사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이나 그 파장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베네수엘라는 국가적 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정리되고 정권 교체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공격을 진행했으며,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3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이란을 넘어 걸프 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 확산 및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1) 2025년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무력 충돌이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으로 이란의 군사 시설과 핵 시설을 폭격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주요 군사 지도자들과 핵 과학자들, 정치인들을 암살하고 민간인을 살해했으며, 방공망을 손상하거나 파괴했다. 이란은 이에 맞서 550발 이상의 탄도 미사일과 1,000대 이상의 자폭형 무인 항공기를 발사하며 보복했고, 민간인 밀집 지역, 병원 1곳, 그리고 최소 12곳의 군사, 에너지, 정부 시설을 타격했다. (참고: 위키백과)

## 북한에 위협적인 요소들

최근 일련의 미국의 군사 작전을 바라보는 북한의 입장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해당 작전들이 북한 입장에서 위협적으로 느낄 여러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먼저 이번 작전들은 미군이 지상군을 대규모로 투입하지 않더라도 지도부만 제거하는 정밀한 작전이 가능한 역량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두로 생포 당시 미군은 전자전·공중 작전·헬기 공중강습 등을 한 몸처럼 묶은 전술 패키지를 통해 방공 체계와 통신망을 교란하고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여, 첫 폭발음이 울린 후 3분여 만에 미 델타포스가 마두로 부부 앞에 나타나는 신속한 모습을 보였다.<sup>2)</sup> 이란에서는 지상군 진입 없이 폭격만으로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지도부를 사살하는 모습을 보였다.<sup>3)</sup> 이와 관련하여 뉴욕타임스는 미군이 인공지능(AI)과 첨단 센서 기술을 결합해 특정 인물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고 보도했다. 거리의 CCTV와 일반 가정의 초인종 카메라, 고속도로 요금소 등 수많은 센서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핵심 정보를 가려내고, 이를 통해 경호 차량의 이동 경로나 경호원들의 암호화되지 않은 휴대전화까지 추적해 지도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다는 것이다.<sup>4)</sup> 이러한 미국의 작전 능력은 분명 북한 지도부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란의 경우 핵 개발이 미국의 공격 명분이 되었다는 점도 북한 입장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일 것이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작전 전개에 주요 이유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내세우고 있다. 그간 이란과 핵 문제와 관련하여 회담을 진행하였지만,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핵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완고하게 핵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전문가들은 이란에 적용된 논리가 북한을 대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박인휘(2026)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 전개를 위해서 핵협상 결렬은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대북한 관계

2) “첫 폭발 3분만에 마두로 앞”...美 베네수 작전 성공 숨은 공신, 중앙일보 (2026.01.0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276>>

3) 토요일 회의 노렸다...한자리 모인 이란 수뇌부 동시 '참수작전', 중앙일보 (2026.03.0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8297>>

4) “마두로·하메네이 AI 손바닥 위였다...추적기술 날개 단 美참수작전”, 뉴스1 (2026.03.03.),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6088206>>

에서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역시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sup>5)</sup> 박원곤(2026)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는 핵 협상 중간 임에도 불구하고 군사 작전을 감행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외교적 노력으로만 해결하겠다는 입장이 이란과 비교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sup>6)</sup>

이와 함께 북한이 유사시 지도부가 공격받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란의 경우 지도자에 대한 유사 사태에 대비하여 "분산된 모자이크식 방어"와 주요 군사 및 정치 인물에 대한 명확한 승계 경로를 구축했다고 한다.<sup>7)</sup> 이러한 준비 덕분인지 미국의 폭격으로 지도자를 비롯한 주요 지도부가 사망하면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상대가 없을 정도라는 말도 있었음에도 이란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군사적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북한은 너무 지도자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된 구조이다 보니 유사시 권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김주애가 다음 후계자 후보로서 얼굴을 비추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성년자인 김주애가 유사시 의미 있는 지도자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북한이 이번 작전을 지켜보며 지도자 보호 및 우발 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 확충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sup>8)</sup>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지도자를 상실했을 때 어떠한 혼란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작전을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sup>9)</sup>

마지막으로 북한은 국내적 불안이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가중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국의 작전들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이 내부적으로 민심을 잃고 혼란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베네수엘라는 경제난과 부정선거 파문으로 인한 국내적 반감을 강압적으로 억누르는 상황이었고, 이란 역시 심한 경제난과 오랜 독재적 통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강경 진압하여 최소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였다.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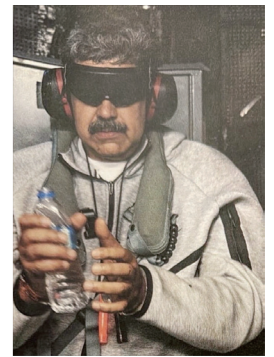
상황에서 미국의 지도자 참수 작전은 국민들의 반발을 기반으로 정권 교체를 유도하는 전략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경우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이란에 대해서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 직후 영상을 통해 이란 국민을 향해 “우리가 (공격을) 끝내면 당신들의 정부를 접수하라”, “미국은 압도적인 강함과 파괴적인 힘으로 당신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금 은 행동할 순간이다. 이 기회를 보내버리지 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sup>10)</sup>

## 북한이 안도할 만한 요소들

한편 북한은 이러한 위협 요소뿐 아니라 자신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와는 다르다고 느낄만한, 안도할 수 있는 요소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북한은 핵 무력을 온전히 보유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를 피부로 실감했을 것이다. 핵을 개발하는 도중이라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미 핵을 보유한 상황이라면 핵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선불리 군사 행동에 나서기 어려워진다는 논리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확고해졌을 것이다. 이미 지난해 ‘12일 전쟁’으로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해 이루어진 이스라엘과 미국의 폭격과 관련하여 “어중간한 핵 개발은 전쟁을 초래하는 반면, 완전한 핵 능력은 전쟁을 막는다는 북한의 논리를 강화한다”는 평가가 있었다.<sup>11)</sup> 이번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은 북한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스러운 수단은 핵무기’라는 기존의 인식을 더 확고하게 가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sup>12)</sup>

이와 함께 이란이 보여준 미군의 군사 작전 이후의 저항과 이에 따른 확산 양상은 북한에 여러 전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이란 전쟁에서 이란은 미국에 군사력으로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지만, 걸프 지역 국가와 시설들을 향한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을 통해 전쟁을 확산시키고 장기전으로 이끌었다. 미국의 군사 작전은 그 자체로는 성공적이었을지 모르지만, 확전으로 인한 후폭풍은 막을 수 없었다. 박원곤(2026)은 이란이 보복 공격을 통해 걸프 지역의 여러 국가를 전쟁에 끌어



〈올 1월 3일, 미군에 붙잡힌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트럼프 트루소셀)〉

5) 박인휘, “미국의 이란 공습과 북미 접촉설을 둘러싼 전망”, 동아시아연구원 Global NK (2026.03.06.), p. 3.  
 6) “미국-이란 전쟁의 전략적 함의와 북미 협상의 한계 |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 동아시아연구원 유튜브 (2026.03.13.), <https://www.youtube.com/watch?v=ysNUYtf6reY&t=576s>  
 7) Anton Ponomarenko, “Fear and Loathing in Pyongyang: What the Iran Strikes Imply for North Korea”, The Diplomat (2026.03.18.), <https://thediplomat.com/2026/03/fear-and-loathing-in-pyongyang-what-the-iran-strikes-imply-for-north-korea/>  
 8) Vann H. Van Diepen (2026), “Eight Lessons for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Forces From the Ongoing Iran Conflict”, 38North (2026.03.16.), <https://www.38north.org/2026/03/eight-lessons-for-north-koreas-nuclear-and-missile-forces-from-the-ongoing-iran-conflict/>  
 9) 장술기, 이란 전쟁에 김정은 속내는? “두려움과 안도감 동시에 느낄 것”, 데일리NK (2026.03.27.), <https://www.dailynk.com/20260327-5/>

10) “전북하라” 트럼프의 이란 선동…북한엔 ‘실사판 악몽’ 될 수 있어, 중앙일보 (2026.03.0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8353>  
 11) Shweta Sharma, “Why Trump’s bombing of Iran will only bolster North Korea’s nuclear resolve”, Independent (2025.06.24.), <https://www.independent.co.uk/asia/east-asia/trump-us-iran-bombing-nuclear-weapons-north-korea-b2775764.html>  
 12) 백승준·김태원(2026), “마두로 강제 연행과 이란 공습 국제법적 쟁점과 한반도 안보에의 시사점”,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6-24 (2026.04.08.), p. 5.



〈지난 3월 3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아랍에미리트 해안에서 대기 중인 유조선들 (사진=로이터, 중앙일보 재인용)〉

들었고, 더 나아가 세계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장을 주변으로 확대하고 전쟁 이해당사자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수평적 확산’ 전술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미국과 동맹의 부담을 가중하고 트럼프의 미국 내 지지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란의 전략을 유사시 북한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sup>13)</sup>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은 북한

이 유사시 이란이 했던 공격과 같이 한국과 일본의 기간시설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모든 해상 교통 및 반도체, 마이크로 전자 제조업체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특히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 공급망을 차단하여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북한에 미국과의 협상뿐 아니라 관련 제품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 대한 협상력도 강화해 줄 것으로 평가했다.<sup>14)</sup>

이와 함께 북한은 주변국의 지지가 자신의 안보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는 중국 등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있었지만, 지리적 한계로 인해 미국의 작전 수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란의 경우 주변 걸프 국가들의 오랜 갈등이 있었고,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비교적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전쟁을 억제하거나 지원할 만큼의 연대나 동맹 관계를 형성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동맹 또는 동맹에 준하는 관계를 맺고 있고, 주변국인 한국이나 일본의 이해관계도 이란과 이스라엘 및 걸프 국가들 사이의 관계와는 사뭇 다르다. 이와 관련해 류현우 전 주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동에는 미국이 이란을 공습해도 함께 뒷감당을 해줄 수 있는 미국의 우방국들이 있지만, 동북아는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세력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 어떤 나라도 이 세력 균형에 균열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 평가했다. 특히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각각 유사시 자동적으로 개입한다는 조약을 맺고 있는 만큼, 북한은 자신이 이란처럼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도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15)</sup>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앞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sup>16)</sup>

## 북미 대화에 대한 전망

한편 앞으로의 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혼재한 모습이다.

먼저 최근 미국의 잇따른 작전이 북미 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 도중에 폭격을 감행한 모습을 보며 협상의 효용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분석이다.<sup>17)</sup> 게다가 전통적으로 북한은 국제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내부 단속에 주력하며 외교적으로 폐쇄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행동양식을 보일 가능성도 이야기된다.<sup>18)</sup>

반면 오히려 회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이 국제 규범적 제약을 거부하는 과감한 행보를 보이는 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을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이란 사태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핵이 협상용 차원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의견도 있다.<sup>19)</sup>

다만 북한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핵 무력이 자신의 안보에 필수적임을 이번 사례를 계기로 더 확신했을 것이기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핵무력 고도화에 대한 변화의 의지보다는 상황을 일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sup>20)</sup>

## 앞으로의 북한의 행보에 대한 전망

일련의 상황들이 북한에 주었을 시사점을 고려해 볼 때, 예상되는 북한의 행보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이란 사태

13) “미국-이란 전쟁이 바꾸는 세계질서와 한반도의 미래 |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 동아시아연구원 유튜브 (2026.03.31.), <<https://www.youtube.com/watch?v=zzCMOnDao9M&t=673s>>

14) Anton Ponomarenko, 앞의 글.

15) 장슬기, 앞의 글.

16) 최용환 외, 미국의 對이란 전격전 개시: 현황과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제813호 (2026.03.05.), p. 8.

17) 위의 글.

18) 박인휘, 앞의 글, p. 4.

19) 위의 글.

20) 백승준·김태원(2026), 앞의 글, p. 5.



<2024년 7월 28일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 이후 제대로 된 개표 결과 공개 없이 마두로 전 대통령이 3선을 확정짓자 일어난 대규모 시위 모습. 마두로 정권은 시위를 강경 진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소 2,200명이 체포되고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다.>

를 통해 핵 보유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저돌적인 행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북미 대화에는 문을 열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미 대화의 향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 외에도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앞으로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국내의 불안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지 여부도 주목해 볼 점이다. 북한은 국내적 불안이 외부의 공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이번 사례들을 통해 확인한 만큼, 예방 차원에서라도 국내 상황 안정에 신경을 쓸 것이다. 제9차 당대회에서 북한 당국은 강력한 사상 개조와 통제 강화를 천명하면서도 민생 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한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사례에서 보이듯 과도한 억압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특히 서민 경제난은 민심 이반을 가속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이 어떤 정책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외에도 북한은 유사시 권력 공백에 대응하는 후계 구도 확립 등 권력 구조에 대하여 더욱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지도부가 위협에 처할 시 즉시 가동되는 ‘핵 반격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란의 “수평적 확산” 전략에 주목하여 실제 사용이 어려운 핵무기 대응으로 활용할 미사일을 비축하고 드론 전력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의 기도

이러한 북한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그 시사점과 기도 제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번 사태는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하게 한다. 지역만리에서 벌어진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피부로 느껴지는데,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후폭풍은 누구도 감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이란이 보여준 것과 같은 “수평적 확산” 전략을 북한이 사용한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기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북핵 폐기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핵을 둘러싼 북미 대화나 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화를 통해 북핵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더 나아가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기도하자.

북한이 국내적 불안 완화를 위해 취할 여러 정책이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조금씩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억압적으로 국민들을 통제해 왔던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그로 인한 역효과로 국내적 불안이 증폭되었던 사례로부터 북한이 교훈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

이와 함께 해외 북한 선교 현장의 안정과 선교의 기회 확대를 위해 기도하자. 북한은 안보적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관계 강화 움직임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회복되지 못했던 북한과 주변국 간의 인적, 물적 왕래가 재개 및 확대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최근 베이징-평양 기차 노선 운행이 6년 만에 재개되는 모습 등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교류 확대는 선교의 기회를 얻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물리적으로 북한의 인접 국가에서 진행되는 사역의 특성상, 중국·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더 밀착될수록 해당 국가에 체류하는 한인 선교사 및 현장 사역자들의 안전과 체류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러시아의 경우 북러 밀착 관계 형성 이후 한인 선교사를 구금하거나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선교 현장의 안전을 위한 우리의 주의와 기도가 요구된다. 해외 선교 현장의 안정과 사역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번 베네수엘라와 이란 사태는 직접적으로 남북 관계나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일련의 행보와 전개되는 상황에 북한이 주목할 만한 점들, 그리고 북한의 앞으로의 정책이나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국제 질서가 약화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역사의 물줄기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인간의 계산과 지혜로는 더 가능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겸손한 자세로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가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의 뜻이 한반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

# 베네수엘라·이란 사태 이후 북한 핵 문제 및 북미 대화 전망

오 일 환 (한양대학교)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금년 초 전격적으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와 이란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제거, 곧 참수 작전을 감행했다. 이 두 사태는 기존의 국제정치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새로운 국제질서의 도래를 알렸다.

##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와 마두로 생포

미군은, 2026년 1월 3일 새벽,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 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를 침공해 방공망을 무력화한 다음, CIA가 파악한 소재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 육군의 최정예 대테러 특수부대 델타 포스(Delta Force)가 잠자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부부를 생포했다. 이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1월 3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력, 공군, 육군, 해군이 동원돼 장엄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그를 생포하고자 했던 주요 배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마두로와 부인 프로레스는 뉴욕으로 압송된 이후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의해 ‘미국과 미국 시민을 상대로 한 치명적인 마약 테러 행위’로 기소되어 법정에 섰다.

## ‘장대한 분노 작전’과 하메네이 참수

또한, 2026년 2월 28일 참수작전의 일환으로 미국·이스라엘의 ‘장대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미군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정밀한 공중 작전으로서 이란의 핵 시설 및 주요 군사 거점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시행한 대규모 합동 공습 작전이었다. 이 작전은 이란의 핵 임계점 도달 임박설과 중동 내 대리 세력을 통한 긴장 고조에 대응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또한, 작전 과정에서 이란 최고 지도부의 지휘 체계를 붕괴시키고 중동 내 안보 지형을 재편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깔려 있었다.

작전 당일에 정밀 타격에 의한 공습으로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와 일가족, 국방장관, 혁명수비대 사령관 등 고위 수뇌부 40여 명이 사망하며 지휘체계가 일거에 붕괴되는 등 이란 군사력이 전방위적으로 궤멸 수준의 타격을 받았다.

참수작전은 하메네이의 거처에 무려 30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하메네이 사망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시작을 알린 지 15시간 만에 공식 발표되었다.

해군은 개전 나흘 만에 대부분의 함선이 격침됐고, 공군은 F-14 알리캣 전량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술기를 상실하고 말았다. 방공망은 이미 2025년의 ‘12일 전쟁’ 때 초토화돼 미복구 상태였으며, 이스라엘은 전투기 200대를 동원해 정밀 타격으로 우라늄 농축 시설을 비롯한 주요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대 등 500개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의 군사적 대응 능력이 궤멸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

베네수엘라·이란 문제로 바뀐 미국이 對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반도 문제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중국·러시아·북한·이란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축에서 일단 이란은 수뇌부가 거의 전멸해 버렸고, 해군·공군력은 괴멸되다시피 했다. 그렇다면 다음 대상은 핵 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핵 폐기 문제는 미국의 안보 현안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인 바 이 문제의 해결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 마두로·하메네이 다음은 김정은?

마두로 부부의 체포와 하메네이 및 군 수뇌부의 폭사, 그리고 이란의 궤멸되다시피한 군사력을 지켜본 데다, 또 “다음 차례는 우리가 아닐까?”라는 염려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 테헤란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AFP)〉



〈올 4월 19일, 딸 김주애와 함께 집속탄을 장착한 '화성포-11라형' 시험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집속탄은 탄두 내에 수많은 자탄이 들어있어 폭발과 동시에 사방으로 확산, 파괴력을 극대화하지만, 이로 인해 민간에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집속탄을 사용한 정황이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북한의 김정은과 군 지휘부는 아마도 심리적 압박으로 밤잠을 설칠지도 모를 일이다.

특히 김정은은 비현실적으로 보이던 '최고지도부 제거(regime decapitation)'가 실제로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전격적으로 단행되는 장면을 목도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북한이 일련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행하고, 군사

훈련을 공개하는 등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김정은의 극심한 두려움의 표현이 아닐까 싶다.

이번 작전들에서 미국이 보여준 전쟁 수행 능력을 미루어 볼 때, 북한의 깊숙한 지하 벙커 시설은 물론, 어떠한 은폐 기술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 없는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다.

더욱이 북한의 면적(약 12만 538km<sup>2</sup>)은 이란의 면적(약 164만 8,195 km<sup>2</sup>)에 비해 약 1/14 정도 수준이니 미국의 AI 기반 알고리즘에 기반한 정밀 타격이 북한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미국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 및 군 지휘부, 핵 시설과 미사일 발사대, 지하 군 시설, 방공망, 해·공군력 등 모든 군사 시설·장비를 겨냥해 집중 정밀 타격을 한다면, 전국토는 순식간에 초토화되고 말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군 지도부가 최종 체제 보장 수단인 핵 보유를 과신하며 적어도 베네수엘라와 이란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보복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전술핵 및 ICBM 기술 완성에 더욱 매진하려 할 것이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는 달리 북한이 사실상 핵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한 군사 작전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참수작전을 펼칠 경우에는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전면전을 불사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으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북한이 지난 6~8일과 19일에 연달아 집속탄과 공중지뢰살포탄을 탄두부에 실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관련 무기 실전 배치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남북한 전면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sup>1)</sup>

또한, 지정학적으로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다는 점도

당장 북한에 대해 대화보다 참수작전과 같은 군사적 행동을 도모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북한으로서는 중·러와의 밀착 연대를 통해 방어막을 형성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 신냉전을 더욱 고착시킬 것이다.

## 김정은 참수작전 시 중리의 반응은?

만약 미국이 김정은을 비롯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을 전격적으로 단행할 경우, 중·러의 예상 대응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예측된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참수작전은 핵보유국 지도부를 직접 겨냥한다는 점에서 이란 사례와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이 될 것이다. 이란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던 중국과 러시아 모두 강경하면서도 신중한 양면적 대응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반도 사태는 미·중·러 간 구조적 대립의 장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은 한반도 급변 사태를 자국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한다. 북한 정권 붕괴가 국경 인근의 혼란, 대규모 난민 유입, 나아가 친미 정권 수립과 주한미군의 북진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는 중국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중국은 작전 징후 포착 즉시 북·중 접경에 대규모 병력을 전진 배치하고, '순망치한(唇亡齒寒)'의 논리에 따라 필요시 직접적인 군사 개입 또는 방어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과의 정면충돌은 최대한 회피하면서, 북한 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차단하고 완충지대를 확보하는데 개입의 목표를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중국과 달리 직접 개입보다는 간접적 견제와 전략적 반사이익 획득에 주력할 것이다. 우선 미국의 군사행동을 국제질서 위반으로 규정하며 외교적 비난 공세를 펴는 동시에,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여 미국을 압박할 것이다. 대북 지원 측면에서는 최근의 북·러 밀착 관계를 바탕으로 정교한 방공 시스템과 조기경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작전 효과를 무력화하려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전략적 시선이 동북아에 집중되는 틈을 이용해 유럽이나 중동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모두 미국과의 전면적인 충돌은 피하려 하겠지만, 전략적 균형 유지를 위한 각자의 방식으로 개입함으로써 한반도 위기는 미·중·러 3자 간 구조적 대립 구도로 확전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북한에 대한 참수작전은 단순한 군사 작전을 넘어, 동북아 세력 균형 전체를 흔드는 지정학적 도화

1) 연합뉴스, 2026. 4. 21.



<2019년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 서 만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회담 결과가 '노딜'로 끝나면서 이후 북미 간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 북한, 미북 대화 나설까?

따라서 미국은 군사 행동을 서둘기보다는 먼저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사례에 질린 북한이 역설적으로 비핵화 대화에 나설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북 대화의 성사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핵 포기는 곧 자신 및 체제 안전 보장의 상실이라고 여길 것이다. 이 때문에, 핵 프로그램을 현실화하지 못한 이란의 상황을 실감한 만큼, 김정은 정권은 핵을 포기하면 체제 생존 보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염려로 탄도 미사일, 전술핵,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무력 고도화에 더욱 집착하며 핵 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북한이 계속 비핵화 대화를 기피하며 핵 무력 고도화에 올인할 경우에는, 트럼프의 기질상, 그리고 미국의 압도적인 작전 전략 및 전력에 비추어 참수작전을 포함한 군사 옵션을 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대북 군사 옵션으로는 '압박(강경 옵션)'과 '현실적 관리(현실적 억제)'라는 두 가지 상반된 전략을 동시에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

## 미북 정상회담 가능할까?

북한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아 왔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 때나 이란의 하메네이 참수작전 직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왔다.

2026년 1월 5일 자 로동신문은 논평기사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무력 침공은 특대형 범죄”의 제목으로 마두로의 체포 및 압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이 과정에 평화로운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국가수반이 미국의 침략군에 의해 강제 연행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

하였다.

이것은 주권국가의 영토 안정과 정치적 독립을 난폭하게 침해하고 국제법의 기초인 자주권 존중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특대형 범죄 행위이며,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미국은 이번 무력 침공을 이른바 ‘마약 퇴치’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너울로 분식하려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강도적인 침략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sup>2)</sup>

북한은 또 미국이 이란 공습을 단행한 다음 날인 3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에 대해 강력 비난하면서도 트럼프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이는 미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속내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담화의 일부 내용이다.

“지난 2월 말부터 감행된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귀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국가의 안전이 심히 위협당하고 있다. 이것은 이란의 자주권과 영토 안정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돌이킬 수 없는 폭발 국면으로 몰아넣는 파렴치한 강도적 행위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침략 책동을 그 무슨 ‘안보 위협’에 대한 ‘방어’로 분식하며 국제 여론을 오도하려 하고 있으나, 그것은 저들의 극악한 테러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sup>3)</sup>

이상의 로동신문 논평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호칭은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서 북한이 언제 있을지도 모를 트럼프-김정은 미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견됐으나, 이란전이 예상과 달리 길어지고 미·중 정상회담이 미뤄지면서 불발되고 말았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란의 상황을 지켜본

2) 로동신문 2026년 1월 5일자

3) 로동신문 2026년 3월 2일자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부가 분위기를 관망하며 미북 정상회담에 부정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에 미국은 여전히 톱다운 방식의 대화를 선호하는 트럼프의 기질을 살려 북한 측에 미북 정상회담 개최 압박을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상회담이 열리고,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 “말로 할 때 들을래, 그렇지 않으면 한 방 맞아 볼래”라는 식으로 나올 때, 참수작전만큼은 피하고 싶은 김정은으로서는 더 이상 비핵화 대화를 기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비핵화’ 미북 대화의 성격 변화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미북 대화 및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경우, 그 양상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겠지만, 북한은 제재 완화와 더불어, 참수작전을 면하고자 김정은과 정권 지휘부의 생존 보장을 최우선 조건으로 내걸며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대화는 당분간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미북 간에 대화·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은 핵을 협상 카드가 아닌 핵 보유를 전제로 설정하여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같은 부분적 동결 수준에서 타협을 시도하고자 할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초기부터 완전한 비핵화(CVID) 요구는 유지하되 현실적으로는 핵군축 등 군비통제형 협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베네수엘라·이란 사태 이전까지 미국은 핵 동결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제한적·일시적으로 제재를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국의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유지되는 한, 미북 대화 개시 그 자체를 위해 선제적으로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영변 가동 중단, IAEA 사찰 수용 등 북측의 가시적 핵 관련 조치가 실행된 이후에나 미국은 행정명령에 의한 제재 조정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즉, 제재 조정은 협상의 입구 조건이 아니라 성과 기반 인센티브로 활용될 것이다.<sup>4)</sup>

반면에 북한은 선 핵포기는 곧 체제 붕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상, 완전한 비핵화 협상을 회피하며 ‘핵보유국 지위’ 조건을 전제로 양국 간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즉, 과거처럼 “선 비핵화-후 보상” 구조가 아니라,

4) 이지선, 「북핵협상 대비 대북제재 전환 시나리오」, INSS 전략보고 제348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2025년 11월 19일, p.9.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협상하고자 할 것이다.

향후 협상에서는 미북 양국이 ‘비핵화’ 용어를 비켜 가며 위험 감축과 핵동결 조치를 중심으로 협상 입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시 말해서 협상 프레임을 ‘비핵화’에서 ‘위기관리’로 전환하는 것이다.<sup>5)</sup> 이에 따라 상호 핵군축 또는 상호 불가침 수준의 낮은 단계의 관리 모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이 자신의 정권 보장을 확고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는 미북 협상에서 단계적 비핵화 조건에 단계적 보상 구조 형태로 타결에 응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특히 베네수엘라·이란 사태 이후, 기존의 국제질서가 지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열리고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트럼프의 다음번 대상은 북한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러시아·북한·이란으로 이어지는 4대 권위주의 축 중에서 이란 다음이 북한인 데다, 자유·민주·인권을 결여한 대표적인 국가이고, 그리고 한반도가 미·중 패권 경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트럼프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트럼프가 ‘고레스’가 되어 주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늦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이사야 1:1-3) ☞*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이지선, 위의 글, p.10.

# 이란 및 베네수엘라 사례가 북한 핵 문제에 미칠 영향 분석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6년 들어 좀처럼 우리가 보기 어려웠던 참수(斬首) 작전의 두 가지 사례가 펼쳐졌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해서 미국으로 압송하는 작전을 감행하는가 하면, 이란의 신정 독재체제 수장인 알리 하메네이를 폭격으로 참수시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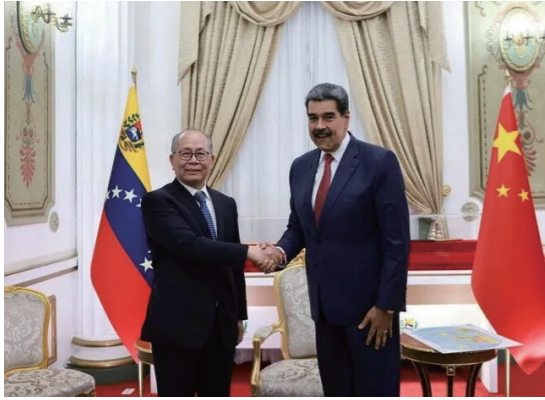
우선, 1월 3일 새벽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를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전격 체포하여 미국으로 압송했다. 이른바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로 명명된 작전을 3시간 만에 완료한 것이다. 이날 오전 2시경 수도 카라카스 등 베네수엘라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항공기가 저공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이 자국 영토와 국민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이 마두로 부부를 체포한 것은 마두로 정권이 부정선거를 통해 자국민을 경제적으로 핍박해 왔고, 미국 내에서 대규모 마약 판매를 기획하고 방조한 범죄 사실을 그 명분으로 내세웠다. 물론 그 배경에는 마두로가 반미친중(反美親中) 행보를 보이는 데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 확보와 관련된 미국의 속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월 28일에는 이스라엘과 연합으로 이란을 향해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로 명명된 대규모 군사작전을 통해 핵 포기 등을 강압한 일이다.

이후 5~6주 정도의 기간 중 미국 측은 1만여 개의 군사 표적 공습을 통해 이란의 미사일, 드론, 저장시설, 지휘통제시설 등 군사역량을 대부분 무력화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혁명수비대 및 바시즈 민병대 지휘시설 등을 집중 타격했다고 한다. 이에 이란은 이스라엘과 UAE 등 걸프국가들을 향해 무차별 보복 공격을 했다.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다. 그리고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 국제 경제를 인질로 삼는 대응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국제유가가 치솟고 트럼프를 곤경에 몰아 넣었다. 그러자 트럼프는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시설과 교량 등을 타격해 석기시대로 만들겠다는 최후통첩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이르는 순간 파키스탄 중재로 휴전에 합의하고 종전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렬되었다. 하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카드는 미국의 대이란 역봉쇄로 무력화되었다.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핵을 포기하면 동결 자산 및 제재 해제, 전후 복구 및 경제 번영 등 정상국가화를 위한 빅딜이 합의될 수 있다. 이제 이란의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 의도대로 협상이 타결된다면 이란 핵 및 호르무즈 문제가 해결되고 중동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이란 및 베네수엘라 사태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해 보고 이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우리는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 배경 및 결과

미국과 베네수엘라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18세기부터 20세기 후반까지 베네수엘라는 전형적인 남미의 친미 국가였다. 베네수엘라는 특히 미국에 중요한 원유 공급처이다. 하지만 1999년 베네수엘라에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두 나라 관계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차베스는 집권 직후부터 2013년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줄곧 반미·반제국주의적 독재정치 노선을 펼치면서 미국과 극렬하게 대립했다. 2002년 베네수엘라에 군사쿠데타가 발생해 차베스 대통령이 잠시 축출되자 미국은 새로 들어선 과도정부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그 후 쿠데타 세력을 진압하고 권좌에 복귀한 차베스는 군사 정변 배후가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 차베스는 유엔연설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을 악마로 묘사하기도 했다. 2013년 차베스가 사망한 뒤 부정선거 논란 끝에 마두로 부통령이 취임했다. 그런데 그의 집권 이후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후퇴했다. 미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



〈공습 몇 시간 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이 카라카스 대통령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특사인 추샤오지와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마두로 전 대통령 SNS)〉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권 유린과 민주주의 탄압을 이유로 베네수엘라에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이 마두로를 꼭 집어 체포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마두로는 오랫동안 미국과 심하게 대립해 온 지도자였다. 미국 정부는 그가 코카인 밀매 조직과 협력하고 마약을 미국으로 밀수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미국 검찰은 이를 마약 테

러로 규정했다. 즉, 미국 입장에서 보면 마두로는 단순한 독재자가 아니라 미국에 마약을 퍼뜨린 범죄 조직의 수장이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미국은 마두로 체포에 현상금 5천만 달러까지 걸어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주장은 표면적인 명분이고 그 이면에는 중국과 밀접한 결탁을 차단하려는 이유가 있다. 미국 국가안보전략서(NSS)에서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안전보장을 제1의 목표로 제시했다. 따라서 미국 코앞에서 전개되는 중국이 반미 성향의 마두로와 결탁하여 미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마두로 체포 작전 이후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계는 급속하게 호전되고 있다. 헌법 절차에 따라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가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는 사면법 제정을 통해 수백 명의 정치범을 석방하고, 야권 지도자 마차도와 함께 향후 민주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2019년 단절된 외교관계를 다시 수립한다는 데 합의했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세계 최대 석유 부국 중 하나였다. 하지만 차베스 집권 이후 독재정치와 권력 유지를 위해 돈을 마구 뿌리는 경제정책의 실패, 반미 독재로 야기된 미국의 제재 등으로 경제는 거의 붕괴 수준이었다. 초인플레이션 현상, 대규모 난민의 발생, 산업의 붕괴가 대표적인 현상이었다. 현재 베네수엘라 경제는 석유 산업 회복 여부가 핵심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이다. 미국이 이번 작전을 수행한 이면에는 에너지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는 미국 석유 기업들에게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 석유 생산 재개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이번 작전을 통해 마두로를 체포하고 임시정부를 출범시키고, 민주화 압력, 미국과 외교 정상화, 석유 산업 재편 등으로 중국을 적극 견제하고 있다.

## 트럼프의 대 이란 '장대한 분노 작전' 의도 및 결과

이란은 원래 미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친미 국가였다. 팔레비 왕조의 이란은 이스라엘과도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중동전쟁 중에도 이란은 이스라엘 편을 들 정도였다. 이 모든 것이 단번에 바뀐 계기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다. 당시 호메이니는 팔레비 왕조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직후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이라는 서슬 퍼런 구호를 제창하면서 철저한 반미, 반이스라엘 노선을 걸어왔다. 이란은 이스라엘 주변국에 소위 친이란 저항 세력을 길러 이들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대표적으로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 민병대 등이다.

호메이니는 집권 후 정규군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만에 이르는 혁명수비대를 별도로 두어 막대한 이권을 주고 이들을 일종의 친위 세력으로 길러왔다. 혁명수비대 내에는 100만이 넘는 바시즈 민병대를 두어 이란 국민을 철저히 감시하고 공안 독재 통치를 이어왔다. 쿠드스군을 두어 이들이 저항의 축 세력들을 훈련시키고 무기 및 자금을 지원하고 조직화하는 등 집요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들을 통해 이란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한 테러 행위를 벌여왔다.

어디 그뿐인가? 북한과 연계하여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이란은 NPT 가입국으로서 핵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할 것임을 국제사회와 약속했다.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야심으로 끊임없이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핵 개발에 몰두했으며 이로 인해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왔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2015년 포괄행동계획(JCPOA)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개발을 지연시켰을 뿐이라며 동 합의에서 탈퇴했다. 이에 반발한 이란은 급격히 고농축우라늄을 441kg을 생산한 사실이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해 탄로 났다. 결국 2025년 6월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한밤의 망치(Midnight Hammer) 작전을 통해 이란의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 등 주요 핵 개발 단지를 벙커버스터로 타격하기도 했다. 이후 이란과 핵 협상을 이어왔지만, 핵 포기의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급기야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장대한



〈지난해 6월, 공습으로 파괴된 이란 나탄즈 핵 시설 모습 (사진=AFP)〉

분노작전을 통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돌입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친 사람이 핵을 갖는 것은 재앙이라며, 이번 작전이 지난 46년 동안 신정 군사독재정권 이란이 미국인 1천 명 이상을 살해한 데 대한 응징 차원의 장대한 분노임을 언급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난 30여 년 동안 북한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실패한 것에 대한 교훈을 기억했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 정권은 끊임없이 국제사회를 기만한 끝에 결국 핵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런데 이란이 핵을 갖는 것은 북한과 그 차원을 달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란은 북한보다 훨씬 큰 나라이고 그 손에 핵무기가 쥐어진다면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란의 핵 포기를 요구한다. 그럴 경우 대규모 지원도 약속했다.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핵 개발 야욕을 내려놓고 그동안 받아온 제재를 해제하고 동결된 자산 및 국제사회의 지원을 기반으로 재건에 돌입해 정상 국가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끝까지 저항하고 그야말로 석기시대와 같은 상황을 맞이 할 것인지 선택은 이란의 몫이다.

## 두 사례가 북한 핵 문제 및 미북 대화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

이 두 가지 참수 사건을 보는 김정은의 속내는 매우 복잡할 것이다. 표면적으로 미국을 제국주의라 비난했지만, 정착 북한 주민들에게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벌어진 참수 작전과 관련된 내용은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다만, 자신들의 핵 무력과 미사일 역량을 비롯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적어도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이란과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자신들은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전력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다. 얼마 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했다. 지난해 9월 북중관계 발전에 합의한 연장선으로 볼 수 있지만 5월 중순 트럼프의 방중 시 김정은과의 만남을 주선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최근 열린 제9차 당대회와 이어 열린 제15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은 핵무력과 함께 상용(재래식)무력도 한층 강화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대남 적대적 두 국가론을 재확인하고 한국을 철저히 배격할 것임을 선언했다. 한편, 미국을 향해서도 강경 메시지를 날렸지만 대화의 문은 닫지 않았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꿈을 포기하는 것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결코 핵 포기는 하지 않겠다는 의

지 표명이다.

트럼프는 이란 참수 작전 이후 다음 상대는 쿠바라고 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쿠바 다음은 어디일까? 김정은은 이 대목에서 등골이 서늘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은 베네수엘라나 이란과는 다른 상황이다. 당분간 북한과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만일 이런 노력이 어렵게 되고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미국은 외교적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 참수 상대가 김정은이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로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리고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우리의 기도 제목

-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이 일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도록
- 둘째,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독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 두 나라가 더욱 민주화되어 국민들이 참 자유와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누리며, 핵 없는 정상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 셋째,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내려놓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에는 자유평화통일을 위한 기회의 창을 열어주시도록 🙏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베네수엘라와 이란 사태가 북한에 미칠 함의

전 순 영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올해 초반부터 연이어 발생한 국제 사태는 북한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가 전격 체포되었고, 이란의 지도자 하메네이가 지하 벙커에서 폭사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핵무력 완성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으로 이란을 선제공격했다. 과거 리비아의 카다피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핵 개발을 포기하거나 실패한 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북한은 이미 학습했다. 게다가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 강대국이 마음만 먹으면 주권 국가의 국경을 넘을 수 있고 국제법이나 동맹국의 존재가 직접적이고 전격적인 군사 행동 앞에서는 지도자의 안위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지난 2월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북한 지도부는 한국과는 “마주 앉을 일이 전혀 없고”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면서도 미국과는 “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북미대화 의지를 표명하자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응했다. 이것은 북미대화를 하고 싶으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의미의 무력시위로 보인다. 한편으로 러시아 파병과 군수물자 수출에 따른 효과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8년 만에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sup>1)</sup> 당대회에서 북한은 경제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인민생활 개선의 의지를 드러냈다. 3월 북중 열차 재

1)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24년 3.7%로 지난 2016년 3.9%에 이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MBC뉴스> (2025.8.29.)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50530\\_36737.html](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50530_36737.html)

개와 더불어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도 나섰다. 또한 김정은은 연일 나이 어린 딸 주애(2013년생으로 추정)를 공식 석상에 등장시켜 후계 세습 구도를 확정하려는 듯하다. 김정은의 위태로운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이는 정권 영속성에 대한 절박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과연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요약하자면, 그의 근래 행보에서는 핵무기를 앞세운 생존과 지속과 번영의 열망을 읽어낼 수 있다. 그 배경에는 흡수통일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다. 바로 ‘전쟁 트라우마 기억’이다.



## 1. 북한사회의 집단기억

오늘날의 북한 사회를 형성하는 공식적인 집단기억은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박한식·강국진, 2018: 64~65). 첫째는 김일성 주석과 연관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일제강점기의 경험과 항일운동에 대한 기억이다. 북한체제의 뿌리는 동북항일연군 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경험에 연원을 두고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통성은 일제 통치라는 엄혹한 시련에 맞서 싸운 기억에서 발원한 것이다. 둘째는 분단의 기억으로, 북한 정권 수립은 친일파 축출과 외세 배격의 필연적인 결과로 간주된다. 남쪽에서는 미군정의 비호 아래 이승만 정부와 친일세력이 득세해 정권을 잡았으나 북쪽에서는 김일성 등 항일혁명가 세력이 소련 군정의 지원하에 정권을 잡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전쟁의 기억이다. 북한 지역에 집중된 공습으로 인해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가족을 잃지 않은 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결국 그 땅을 지켜냈다는 것이 철저한 민족주의를 고착시켰다. 넷째는 중국과 소련 간 대립의 기억이다.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소련 사이에 갈등이 고조될 때 어느 한쪽을 편들 수 없었다. 답은 등거리 외교였다. 북한은 양측을 오가며 지원을 받아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생존능력을 키웠다.

이러한 집단기억 중에서 한국전쟁의 기억은 북한 체제의 기형적 구조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북한에서 한국전쟁은 미 제국주의와 북한 사회주의가 대결해 북한이 승리한, 이른바 ‘조국해방전쟁’이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결정



〈평양 보통강구역에 위치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적인 요인은 항일 투사 김일성의 탁월한 영도력이기 때문에, 향후 미제와의 전쟁이 재발할 경우 승리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의 혁명적 가계를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 정권의 세습 논리이다. 북한의 속내를 알려면 이러한 역사적 경험들이 어떻게 집단인식을 형성했는지 이해해야 한다. 과도하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허세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북한의 이면에는 엄청나게 벌어진 남북의 국력 격차에 위축되고 외교적으로도 고립되어 갈수록 수세에 몰리는 북한의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 2. 핵개발의 원동력이 된 전쟁 기억

북한의 핵개발도 다양한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공포 그 자체였던 미군의 공습을 경험한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과 핵공격에 대한 방어기제로 자체 핵무기를 개발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 트라우마를 겪은 북한 사람들은 미군기가 핵무기를 투하할지도 모른다는 극한의 공포에 시달렸다. 1950년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함흥시 흥남부두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던 피란민들은 미군이 후퇴한 후 원자탄을 떨어뜨린다는 소문 탓에 온통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의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미 육군부는 1951년 9월 중국군이 개입하자, 유사시 북한 지역과 중국, 구소련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허드슨 항구 작전(Operation Hudson Harbor)'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했다. 군사적으로 핵무기 사용 옵션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비등했지만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결국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핵무기 사용을 주장했던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은 해임되었다. 1964년 10월 중국이 첫 번째 핵실험에 성공했을 때 마오쩌둥은 "어차피 써먹지 못할 물건이다. 미국이나 소련이 우리가 핵보유국이라는 것만 인정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김일성의 인식도 그와 유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군에 맞서 힘겹게 투쟁했던 김일성으로서는 그토록 강력해 보이던 일본군이 원자탄 두 방에 더할 나위 없이 무력하게 굴복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김씨 일가가 3대째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미국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 안보 논리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인식이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1955년 1월 아서 래드포드 미 합참의장은 서울을 방문해 "필요하다면 북한의 어떤 새로운 침략이든 막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발언했다. 한반도에는 1957년 12월 말부터 1958년 1월까지 약 150개의 핵탄두가 배치되었고 1967년에는 그 숫자가 최고 수준에 달해 약 950개로 늘어났다. 북한은 1961년 구소련과 군사동맹을 체결하면서 핵우산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1990년 구소련이 한국과의 국교 수립을 통보하자, 북한은 '조소상호원조조약' 파기를 선언하고 이에 따른 자구수단으로 핵무기 개발과 함께 1985년에 가입했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의도를 밝혔다. 구소련이 제공하던 핵우산이 사라졌으니, 자체적으로 핵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한반도 남쪽에서는 냉전 종식에 따른 미-소 간의 합의로 1991년 전술핵 철수가 이루어지고 한국 정부가 1991년 12월 18일 '핵부재 선언'을 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위협이 증가하면서 남한에서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계속 점화되고 있고, 최근 경주 APEC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에 대한 안보 의존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2003년 12월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와 관계 정상화 약속을 받고 핵개발을 포기했다가 내전이 발발하면서 결국 2011년 반군에게 처형되었다. 당시 미국은 반군을 적극 지원했다. 2013년 3월 31일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못이겨 이미 있던 전쟁 억제력마저 포기했다가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 만 발칸 반도와 중동 지역 나라들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선불리 핵무기를 포기했다가는 카다피처럼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낸다. 이런 상황에서 핵이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지점에서부터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핵문제는 한국전쟁 트라우마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등이다.

## 3.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실적 접근

북한은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헌법에서 '평화통일'이나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삭제하며 통일 관련 기구들을 대거 폐지했다. 이는 체제 흡수나 붕괴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남한과의 연결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



〈2023년 3월 28일, 핵무기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는 김정은 위원장. 주위에 핵탄두 모형과 설명 표지판이 확인된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탈북민 수기: 김정직 목사

### 제 5화

는 것만이 북한 주도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가 장기간의 평화적 공존과 개혁·개방 유도로 선화하는 것이 유일한 실용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이는 과거 서독이 동독을 대했던 ‘동방정책’과도 궤를 같이한다. 우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우발적 전쟁의 위험을 낮추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의료협력 등 비군사적 교류를 시도하여 장기적으로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외부정보 유입 = 정권 붕괴’로 동일시하여, 체제에 위협이 될 요소는 차단한 채 핵보유국으로서 경제적 실리만 취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평화적 공존 정책이 북한의 진정한 내부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독재체제를 연장시키기만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평화적 공존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하려면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실질적 경제 주체인 ‘장마당 세대’가 총성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세대라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 밀착형 정보가 유입되도록 하는 것,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외부 문화를 전파하는 것 등이다. 또한 북한 정부가 정권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믿게 만드는 특구 중심의 점진적 개방 유도 전략이 바람직하다. 의료, 보건, 환경, 기후위기 대응과 같은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협력은 북한 정부도 명분상 거부하기 어렵다. 체제 전복에 대한 공포를 완화하는 다자간 협약을 통해 핵에 집착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전쟁 트라우마 기억에서 벗어나는 핵심 조건은 ‘안전감(safety)의 회복’이기 때문이다. 젊고 미숙한 지도자가 오판에 의해 핵단추를 누르는 일이 없게 하려면, 생존을 넘어 번영을 꿈꾸는 열망이 실현되도록 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가까워지는 길일지도 모른다. 🙏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문헌

전순영. 2025. 한반도의 기억. 파주: 한울아카데미.

박한식·강국진. 2018. 선을 넘어 생각한다. 서울: 부키.

도문에 도착한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가족들을 따라 도문교회로 향했습니다. 난생처음 교회라는 공간에서 예배에 참여한 터라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고 예배의 각 대목마다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멍뚱뚱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우리는 도문 교회에 계신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전에 저희 아버지를 만나셨고, 저희 아버지가 김익두 목사의 손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한국에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아버지를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 후원까지 연결했던 분이셨습니다. 장로님을 비롯한 교우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목당강에서 북한 사역을 하시던 재미교포이신 문영선 목사님께서 모든 준비를 해놓겠다고 하시며 저에게 기차표와 돈 50만원을 쥐여주셨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께서도 그곳에 머무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 그곳에 가면 아버지께서 옥중에서 말씀하셨던 남겨두신 돈과 옷가지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따랐습니다. 도문에서 하얼빈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올라가다 중간에 ○○○역에 내리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면서, 저는 가진 돈으로 술과 소시지, 계란을 사고 담배도 한 갑 사서 챙겨 넣었습니다. 기차가 떠나려면 아직 시간이 꽤 남아서 술을 마시고 담배도 한 대 피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에 중국인들이 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담배를 하나 더 꺼내 들고 기분 좋게 두 모



〈중국 투먼(도문) 변방대 구금시설〉

금을 빨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열차 승무원이 저를 보고 무엇이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승무원을 멀뚱멀뚱 쳐다만 보다가,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뜻인가 싶어 담배를 입에서 떼어 귀에 꽂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경찰이 오더니 저를 붙들고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

모습이 수상스러워 보였나 봅니다. 저는 결국 경찰의 인솔 아래 중간에 돌아와 도문 변방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잡혀버린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때 당시는 아직 중국이 본격적으로 강제 북송에 나서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변방 감옥에 잡혀 온 탈북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후에는 수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면서 수감 시설이 모자라 감옥을 확장하고 먹는 것도 형편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수감될 당시에는 감옥에 탈북자는 저 하나였고, 그 외에는 북한 쪽에서 잡혀 나온 조선족이 몇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변방부대 간부가 너희가 같은 동포이니 잘 대해 주라며 저를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열흘 정도 수감되어 있었던 저는 다리를 건너 북한 온성군 남양으로 보내졌고, 온성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북한도 요즘과 같이 탈북자를 엄하게 고문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 친척 집에 쌀을 구하러 갔다고 하니 다시는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청진 집결소로 보내졌습니다.

청진 집결소로 이송되는 일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전기 사정이 열악하여 기차가 제대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기차 운행을 기다렸는데, 그 과정에서 그때까지 제가 돌아오기를 남양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와 남양역에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청진 집결소로 갈 예정이었기에 아내에게도 청진으로 오라고 했는데, 아내는 제 말을 잘못 이해하고 계속 남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야 청진행 기차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20여 명의 수감자들이 한 줄로 묶여 온성-평양 노선 기차를 타고 청진 집결소로 압송되었습

니다. 요즘보다 처벌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갇혀 지내는 생활이 쉬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고난의 행군 시기였으니 수감 시설에 먹을 것이 제대로 공급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매일 강제노동을 나가야 했고, 잠자리도 형편없었습니다. 집결소에 들어간 날부터 어떻게 하면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청진 집결소로 보내진, 탈북했다가 북송된 사람들이 서른 명이 좀 넘었는데, 그중 남자는 저 포함 두 명이었고 나머지는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여성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를 하찮게 대하기 일쑤였습니다. 모두가 배가 고파 굶주리는 환경 속에서 여자들과 아이들은 더욱 어려움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려 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난의 행군 때 살기 위해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의 남녀 비율을 조사한다면 1:10도 안될 것이라고 감히 추정해 봅니다. 나이대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나 미성년자들도 인신매매를 당하여 중국에 팔려 가곤 했는데, 그러다 중국에서 잡히면 북송되는 것이었습니다.

청진 집결소에 수감된 지 스무날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수감자들이 집결소 뒷마당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정리하는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른 명이 넘는 여자들 틈에서 일을 하다 눈을 들어보니 한쪽 칸에서 간부 한 명이 통나무를 쌓아둔 곳에 앉아 여자들을 한 명씩 불러 세워놓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언 뜻 들리는 소리를 듣자 하니 왜 중국에 갔는지,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중국은 어떤 나라인지 같은 질문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지금 기회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던 남자 수감자에게 지금 당장 달아나자고 했습니다. 당시 집결소 담장은 그 높이가 어림잡아 약 2미터 50센티미터 정도 되어 보였고, 그 위에 전기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철조망에 전기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용접봉 꼬트머리를 구부려 담장 위로 던져보았습니다. 용접봉이 철조망에 닿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우리는 담벼락의 모서리 귀퉁이로 가서 모서리에서 양쪽 벽을 붙들고 담을 넘었습니다.

담을 넘어온 곳은 김책 제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사택에 딸린 텃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우리가 담을 넘어 떨어진 곳 주변에는 도둑이 텃밭 채소를



흠쳐 가지 못하게 쇠창살이 쳐져있었습니다. 게다가 제철소 노동자 중에는 밤에 일하고 낮에 쉬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담장을 넘었을 때 몇몇 노동자들이 집 앞에 나와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담장에서 툭 떨어진 우리를 목격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우르르 모여들어 우리를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그들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기 기관차대 기관사다. 나는 중국 다녀온 거지 도둑질을 하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니까 막지 마라. 지금 나를 가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출소하고 나서 너희들 일거리 있을 때마다 뻔뻔하고 보복할 것이다.”라며 겁을 주었습니다. 제철소 직원들은 제 말을 듣고 머뭇거렸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라면, 그 당시 분위기로는 길지 않은 기간 형을 살다가 풀려날 것이고, 제철소는 열차 이용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협박한 대로 나중에 자신들이 상당히 골치 아파질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물쩍거리고 있을 때 담장 안 집결소에서 “남자 둘 어디 갔어?!”라며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텃밭의 쇠창살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제철소 사람들은 제가 급하게 움직이자, 미처 잡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버버거렸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쇠창살을 넘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같이 집결소 담장을 넘었던 다른 남자 수감자는 그곳에서 잡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숨이 차게 달려 도망친 곳은 집결소 인근에 살던, 제 친한 친구의 형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 형님은 저를 보고 매우 놀라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친구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친구가 왔습니다. 친구와 함께 어머니가 계신 우리 집으로 가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집 근처에 왔지만 저는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들어갔다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내가 집 옆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나 대신 우리 집에 들어가 어머니를 만나고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 하고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가 저를 학교 마당에 두고 저희 집에 가기 전, 그 집에는 이미 저를 잡기 위해 안전원(북한에서 경찰을 호칭하는 말)이 와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만나 “김정직이 집결소에서 도망쳤으

니, 집에 오면 자수하고 다시 집결소로 돌아오게 하라”고 메시지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만약 기간(3~4일)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봐주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도 곁들였습니다.



안전원이 집을 나가고 나서 마침 안전원과 반대 방향에서 걸어 온 친구는 다행히 걸리지 않고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에게 제 소식을 전하고 친구가 집을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안전원이 다시 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제 사진을 받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친구와 안전원은 집에서 맞닥뜨리는 위험을 피한 것이었습니다. 안전원은 기간 안에 제가 돌아오지 않으면 수배를 때리겠다고 하며 제 사진을 받아 갔습니다.

어머니는 안전원이 떠나자마자 두부 집에 가서 외상으로 두부를 한 모 사서 학교 마당에 있는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드디어 어머니를 만난 저는 제가 중국에 갔던 사실과 외당숙이 연변대학에서 조직부장으로 재직 중인 것, 그리고 이모할머니를 만난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중국으로 넘어간 것조차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적잖이 놀라셨지만 이모님이 살아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매우 반가워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계시던 목단강으로 향하다가 잡혀 왔고, 그곳에 가면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들어가 동생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지만 이제 그 집은 저를 잡기 위한 덫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곧 수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짧은 만남 후에 저는 회령까지 가는 화물 기차를 몰래 잡아타고, 다시 회령에서 온성으로 가는 화물 기차를 몰래 잡아타는 식으로 이동하여 온성군 남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아내와 함께 다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계속) ☞

## 北, 4월 한달 간 잇단 미사일 발사 시험 진행

북한은 4월 6~8일경 원산 및 평양 일대에서 수 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을 진행한데 이어, 4월 19일에는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개량형 전술미사일 시험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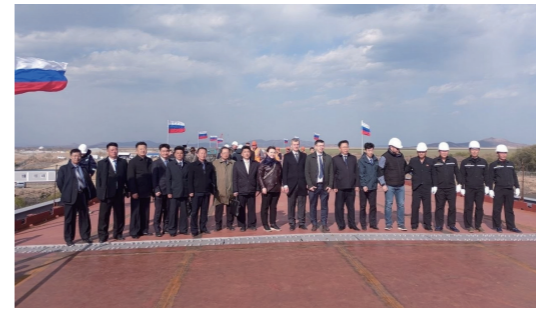
〈북한의 집속탄이 폭발해 여러 개의 작은 탄두가 사방으로 퍼져 폭발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집속탄 탄두와 파편 지뢰 탄두의 특성과 위력 평가를 위한 발사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4월 19일에 시험한 '화성포-11라'형 전술미사일은 집속탄 탄두와 파편 지뢰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월 6~8일 미사일 시험 역시 '화성포-11가'형의 확산탄 탄두 시험발사로 확인된다. 집속탄 탄두는 내부에 다수 자탄(새끼탄)이 들어 있는 구조로 살상력을 극대화한 무기이며, 파편지뢰 탄두는 표적 상공에서 지뢰를 대량으로 신속 살포하기 위한 산포지뢰 형태로 추정

된다. 이와 관련하여 38North는 북한이 집속탄을 개발한 배경에는 부실한 공군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집속탄으로 넓은 면적을 한번에 타격하는 것은 '지역 목표 제압'을 위한 공군의 폭격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38North는 집속탄이 미사일의 명중률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적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4월 19일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였고,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북한 언론은 전했다. 이번 참관에도 김정은의 딸인 김주애가 함께 동행했다. 🗨️

## 북러 잇는 두만강 자동차다리 연결식... "6월 19일 완공예정"



〈두만강에서 열린 북러 자동차 교량 연결식 (사진=주북 러시아대사관 텔레그램)〉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이 오는 6월 19일 완공될 예정이라고 러시아 측이 밝혔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4월 21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날 북러 국경에서 양국 간 두만강 교량 연결식이 열렸으며 이같이 공개했다.

북러 두만강 자동차 교량 신설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지난해 4월 말 착공했다.

북러는 각각 강 가운데 방향으로 상판 공사를 진행해 올해 2월 말께 교량 상판을 연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정식으로 양측을 '접합'하는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만강에는 북한 두만강역과 러시아 하산역을 기차로 오갈 수 있는 철교가 있지만 자동차용 교량은 없었다. 자동차 교량 개통은 북러 간 협력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하는 실질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 연합뉴스, 4월 21일) 🗨️

## 추가적인 북·중 열차 운행 재개 움직임 포착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중단됐던 북중 간 철도 운행이 재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4월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기관차는 객차나 화차를 연결하지 않은 채 국경을 넘은 뒤 당일 다시 돌아갔으며, 이는 운송 재개에 앞선 기술 점검 성격의 시험 운행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 철도 당국은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자 2020년 1월 두 노선의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운행 중단 이전에는 지안-만포 노선에서 여객 및 화물 운송이 모두 이뤄졌으며, 여객 열차와 화물 열차가 각각 주 3회 운행됐다. 반면 투먼-남양 노선은 주로 화물 운송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노선은 각각 약 11.1km와 3.4km 길이의 단거

리 국제 철도로, 북중 간 협정에 따라 운영돼 왔다. 기관차와 승무원이 양국이 번갈아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짝수 해에는 중국이, 홀수 해에는 북한이 담당한다.



〈북중 세관 인근에서 시험 운행중인 기관차 모습 (사진=더우인)〉

현재까지 양국 정부는 운행 재개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영상 게시자는 4월 20일을 전후해 운행이 재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시험 운행 정황은 약 6년간 중단됐던 북중 간 교통 연결이 점진적으로 복원되는 흐름에서 나왔다. 3월 12일부터 베이징과 평양을 잇는 여객 열차 운행이 재개됐으며, 현재는 업무 목적 이동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용이 허용된 상태다. (참고: 연합뉴스, 4월 22일) 🗨️

## 김정은, '방북' 왕이 중 외교부장 접견... “북중친선관계 최우선 중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중국의 '다극세계 건설' 정책에 지지를 표명하고, 지역·국제정세에 관한 북한의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월 1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0일 왕이 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중(북중)양국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여러 레벨에서의 왕래와 접촉을 강화하고 상호 지지와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역 및 국제 정세 문제들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작년 9월 북중 정상회담으로 “새로운 발전국면”을 맞이한 북중친선관계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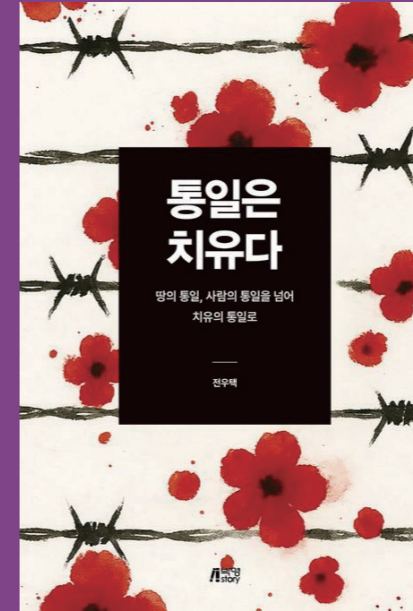
시키려는 중국의 입장과 함께 “지역 및 국제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5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과 왕 부장이 '지역문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교환했다는 것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입장 피력과 중국의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했지만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는 표현은 이날 북한 보도에는 없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지난해 7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접견했을 당시 북한 매체는 “완전 일치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왕 부장을 만나 “따뜻한 인사”를 나눈 후 “동지적 분위기” 속에서 담화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조중(북중) 친선관계를 가장 귀중히 하고 최우선적으로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다극체계 건설을 위한 중국의 대내외 정책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 목: 통일은 치유다

저 자: 전우택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5년 12월 1일

가 격: 23,000원

분단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도 점차 식어지는 모습이다. 게다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통일에 대한 논의가 점차 약해지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 통일이여야 하는지 다시금 질문해 보게 된다.


오늘 소개할 책, “통일은 치유다”는 한반도의 트라우마 치유라는 차원에서 통일에 관하여 고찰한다. 이 책의 저자는 일찍부터 통일이라는 것이 단순한 “땅의 통일”이 아니라 “사람의 통일”이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영토만 하나가 된다고 해서 통일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통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남과 북은 전쟁의 상처와 함께 상반된 이념 속에서 서로를 적대시하며 살아온 기간이 오랜 만큼,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하나의 건강한 공동체로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해 왔다.

저자는 오늘 소개하는 책의 제목을 “통일은 치유다”로, 그 부제를 “땅의 통일, 사람의 통일을 넘어 치유의 통일로”라고 붙였다. 이 책의 서문에서는 이러한 제목과 부제가 붙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분단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결국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본다. 분단이 만들어 낸 이익과 행복은 극소수에게만 주어질 것이지만 통일의 이익과 행복은 한반도의 모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절대적으로 크고 깊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이 “통일은 치유다”가 되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통일이 정말 “치유적 통일”이 되려면 많은 준비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책은 통일이 치유가 되기 위하여 있어야 하는 조건과 준비에 관한 책으로 저술되었다고 전한다.

이러한 저자의 의도는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일을 논하는 책들이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 등 경제적 논의를 이야기한다거나 북한과 남한의 여러 차이점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면, 이 책은 “치유”적인 관점에서 시작한다. 즉 개인과 사회의 트라우마와 그 치유에 관한 이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과 기독교 등 굵직한 갈등과 그와 연관된 트라우마 및 치유에 대한 관련 사례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주 4.3 사건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치유해 나가는 제주 하귀 영모원 이야기, 남남갈등, 대북 지원 및 보건의로 활동 등 한반도 분단의 트라우마와 치유에 관한 성찰로 확장해 간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아-팔 분쟁이나 제주 4.3 사건 및 대북 지원 관련된 이슈는 독자에 따라 저자와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저자는 이 책의 5장을 통해 이념적인 선명성에 매몰되기보다 ‘인간 존중’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기를 제안하며 “좌우보다 건강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이 책의 전반적인 논조를 설명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불편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는 독자도 있겠지만, 이 책이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차원이 아닌 개인과 사회의 “치유”에 초점을 둔 책이고, 저자가 의료인으로서 통일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독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선교적인 맥락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된, 저자가 직접 탈북 대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북한 사람들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여러 대화와 토론을 정리한 부분이다. 북한 출신 사람들이 제기하는 여러 신앙적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하고, 관련 연구 자료를 조사하며 북한 출신분들이 가지게 되는 성경과 신앙에 관련된 여러 의문과 난제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남한 출신인 이들과는 또 다른, 신앙을 받아들이는 관점과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탈북민 성경 공부 리더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사역 현장과 일선 교회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이 책을 권하는 이유로 꼽아본다. 생각의 차이를 넘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로서, 일선 교회가 통일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데 “통일은 치유다”가 다루는 화두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며, 이 책을 소개해본다. 

**1**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 명분이 이란의 핵 개발이었던 만큼 이번 사태가 앞으로의 북미 대화와 북핵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편으로는 북한이 핵에 더욱 집착할 것으로 평가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미국의 위협적인 행보가 북한에게 대화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도록 만든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북미 대화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2**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전쟁은 우리에게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북한은 최근 있었던 제9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했습니다. 또한 핵무기뿐 아니라 각종 미사일과 드론 전력 등 다양한 무기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비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 가운데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유사시 우발적으로라도 군사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3** 북한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권리 증진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미국의 군사 작전 대상이 된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모두 경제난과 오랜 독재 통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반발로 국내 정세가 혼란한 중에 있었습니다. 북한이 최근 사태를 통해 서민 경제를 챙기고 주민들의 권리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북한이 그간 시행한 강력한 외래문화 통제와 함께 ‘사상 개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최근 당대회를 통해 시사하였는데, 이러한 기조가 주민들의 권리를 더 침해하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예배의 자유를 포함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간혀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 한총련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던 장백의 장문석 집사님께서 12년 만에 풀려나셔서 중국으로 귀환하신 소식은 우리에게 옥중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여전히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 등이 억류 중이고,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 지하 교회 성도와 강제 북송 탈북 여성 신자가 있습니다. 수용소에 갇힌 성도와 억류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연좌제로 인해 처벌 및 추방을 당한 지하 교회 성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북한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속히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5** 해외 북한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중·러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베이징-평양 여객열차 운행이 3월 12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중국발 북한 관광도 곧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들립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북한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북·중·러 협력

이 더 많은 북한 출신 영혼들과의 접촉점 확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국가 간 외교적 긴장이 선교사의 체류와 사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별히 러시아에 수감 중인 백 모 선교사님과 박 모 선교사님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선의 선교사와 현장 사역자들이 변화하는 상황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6** 해외 북한 노동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으로 다수의 노동자가 파견되고 있고, 올해에도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등 인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비록 통제 아래 있지만 북한 밖 세상을 경험하고 북한에서 듣지 못했던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바깥세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을 향한 창의적인 선교의 기회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착취가 중단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도록 기도합니다.

**7** 제3국 탈북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북한 여성들에 대한 복송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시기심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탈북 여성들을 모함하고 신고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여성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다투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하여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여성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여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악한 계획이 무산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사와 현장 사역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하게 사역을 이어가고, 이를 위한 창의적인 사역 방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에서  
선교를 위한 자료개발과 한국교회에 기도정보 제공을 위해  
계간 “북한지역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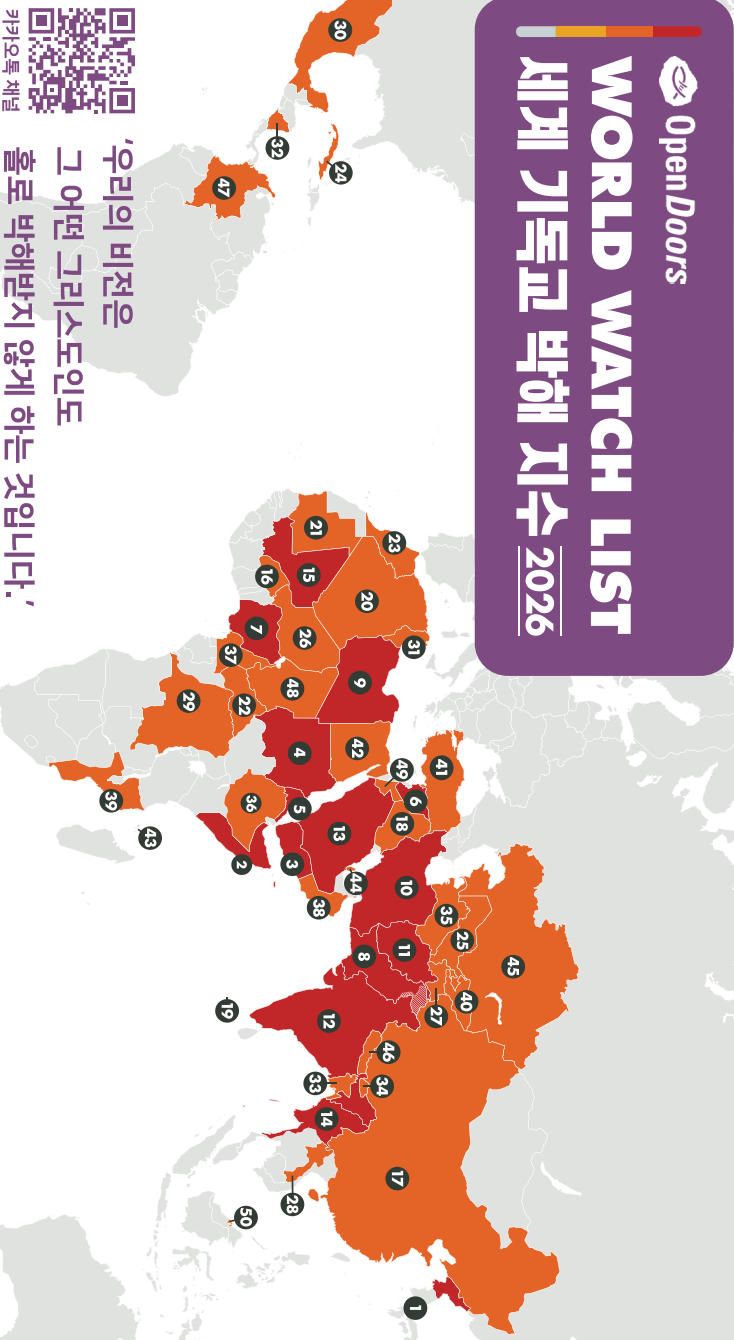
“북한지역연구”의 온라인 버전은  
홈페이지([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요청하기”메뉴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6년 4월 30일

Open Doors  
**WORLD WATCH LIST**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2026**



‘우리의 비전은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홀로 박해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카터오픈도어스

**국가 목록에 대해**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는 오픈도어의 분석가들이 150개국 현지 전문가들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각 국가의 박해 상황은 폭력과 압박을 추적하는 점수 시스템을 통해 기록된다. 이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사건의 수와 심각성, 그리고 신앙 생활의 5개 영역에서 가해지는 압박의 정도를 측정한다.

- 폭력
- 개인 생활
- 가족 생활
- 공동체 생활
- 국가 생활
- 교회 생활

각 항목의 최대 점수는 16.7점이며, 이를 모두 합산했을 때 총 최대 점수는 100점이다. 각 국가의 순위는 100점 만점 중 해당 국가의 총점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박해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박해 정도**

- 높음 4.1-60점
- 매우 높음 61-80점
- 극심함 81-100점

목록에 포함된 모든 국가는 기독교 박해 수준이 '매우 높음' 또는 '극심함' 단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 내 기독교인들이 겪는 박해의 강도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



순위	국가	점수
1	북한	97
2	소말리아	94
3	에티오피아	93
4	수단	92
5	에리트레아	90
6	시리아	90
7	나이저리아	89
8	파키스탄	87
9	리비아	87
10	이란	87
11	아프가니스탄	86
12	인도	84
13	사우디아라비아	82
14	미얀마	81
15	말리	81
16	부르키나파소	80
17	중국	80
18	이라크	79
19	몰디브	79
20	알제리	77
21	모리타니	76
22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75
23	모로코	75
24	쿠바	73
25	우즈베키스탄	73
26	니제르	72
27	타지키스탄	72
28	라오스	72
29	중화인민공화국(PRC)	72
30	멕시코	71
31	튀니지	71
32	니카라과	71
33	방글라데시	71
34	부탄	71
35	투르크메니스탄	71
36	에티오피아	70
37	카메룬	70
38	오만	70
39	모잠비크	69
40	키르기스스탄	68
41	튀르키예	68
42	이집트	68
43	코모로	68
44	카타르	67
45	키르기스스탄	67
46	네팔	67
47	콜롬비아	66
48	체코	66
49	요르단	65
50	브루나이	65